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할을 어떻게 찾을까?

기도

찬 송 마지막 날에 (148쪽)

말 씬 빌립보서 2:13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중물

19세기 초, 미국 코네티컷의 어느 마을에 근심에 싸인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지중지 키운 네 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말을 못했기 때문이지요. 고민하던 아이의 부모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토머스 갤로데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선천성 농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수심 어린 부모의 표정과 천진한 네 살배기의 미소를 번갈아 바라보던 갤로데트 목사님은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한 후 자신이 그 아이의 교육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교회 한쪽에 ‘코네티컷 농아학교’라는 작은 간판이 세워졌어요. 당시 교사는 갤로데트 목사님 한 사람뿐이었고, 학생은 그 네 살짜리 아이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두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학교가 미국 농아 교육의 시발점이 될 줄은 갤로데트 목사님 자신도 알지 못했지요.

당시 농아가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농아 교육’이란 말 자체도 듣기 어려울 때였지요. 하지만 갤로데트 목사님은 농아들이 인정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제 몫을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다들 헛된 꿈이라며 말렸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명감이 그에게 큰 힘을 주었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농아들을 위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교회에서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예배시간을 마련했어요. 갤로데트 목사님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뉴욕 최초의 청각 장애인 교회를 세웠답니다. 워싱턴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청각 장애인 종합대학교인 갤로데트 대학교가 있습니다. 갤로데트 목사님이 링컨 대통령을 만나 만들어지게 된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시골 교회 목사였던 갤로데트 목사님이 장애인 종합대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1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까요? (13절)

2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을 알 수 있을까요? (13절)

3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각 사람의 역할을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3절)

4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함에도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기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역할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